세인을 웃기는 허세성추태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달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군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한》미장병들의 련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련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대북대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되였다고 떠들고있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 발사시험을 진행한 사실을 요란하게 공개하는 놀음도 벌리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러한 행위는 세계가 무시할수 없는 절대적힘을 비축한 공화국의 강대한 실체와 변혁적인 국방력발전상에 질겁한 자들의 허세성추태에 불과하다.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은 제국주의폭제시대를 끝장낸 공화국인민과 혁명무력의 불굴의 정신과 강용한 힘을 과시한 대축전이였으며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평화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해 담보된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준 력사적계기였다.

세계가 경탄하는 공화국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로 더더욱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호전세력이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이 제14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미국산 해상대공중미싸일을 끌어들이며 발광적으로 무장장비현대화책동을 벌리고 정찰위성을 추가개발하겠다고 떠드는것도, 미국의 핵전력자산들을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아하는것도 외세와 결탁하여 위험천만하고 반민족적인 북침야욕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공화국의 절대적힘, 무비의 군사적강세앞에 바람앞의 초불신세가 된 저들의 가긍한 처지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

이번 사상최대의 열병식행사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윤석열패당이 《한미동맹강화와 한국형3축타격체계의 조속한 완성》을 떠벌이며 날뛰고있는것 또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눈깔이 뒤집힌자들의 불안과 공포의 발로이다.

그 무슨 《한국형3축타격체계》라는것은 동족에 대한 《선제공격》과 《평양초토화작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있지만 많은 제한성으로 하여 군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실현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였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도 공화국의 극초음속미싸일과 신형전술미싸일, 기존의 단거리미싸일들을 《섞어쏘기》할 경우 수평, 수직으로 동시에 날아오는 미싸일들을 전혀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를 일일이 따라가며 《선제타격》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하면서 《한국형3축타격체계》는 구축도 되기 전에 무력화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이런 얼치기체계를 윤석열이 《조기구축》하겠다고 아부재기를 치는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헤덤비는 하루강아지의 가소로운 객기이며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자멸을 앞당기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남조선내부에 만연되는 《안보》불안과 공포를 잠재워보려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려는 허세성술수를 써보려 하지만 겁에 질린자의 단말마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은 다름아닌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를 걸고들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이다.

내외여론이 상대에 대한 오판과 시대착오적인 망동으로 초래할것이란 비참한 자멸뿐이라고 하면서 제 처지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며 가소롭게 날뛰는 남조선호전세력을 조소하고 단죄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류현철

더욱 심화되는 정국혼란

남조선정국이 검찰수사권폐지가 립법화된것과 관련하여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되였다.

알려진것처럼 원래 검찰수사권폐지문제를 둘러싸고 치렬하게 대립하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2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4월림시《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여야당의 합의안은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하는 법안》으로서 당장 취소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자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합의를 파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합의사항을 무효화하는 《국민의힘》의 추태를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4월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수사권폐지와 관련한 법안심사를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폐지와 관련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이라는것을 벌려놓자 《국회》 본회의를 무려 4차에 걸쳐 개최하는것으로 무력화시키고 끝내 《검찰청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강행통과시켰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두개 법안이 심의, 의결되고 공포됨으로써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수사권폐지의 립법화는 끝내 성사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검찰의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부패, 경제와 관련한 범죄로 한정되게 되였으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조직되면 넘겨주게 되여 검찰은 사실상 기소권만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검찰수사권폐지는 독재의 칼잡이로 되여온 적폐검찰에 대한 청산, 개혁을 바라던 초불민심의 승리이며 민주개혁세력의 숙원이 완성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뒤집겠다는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도전이며 궁극에는 남조선 전반민심과 대결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시기 검찰을 앞세워 독재광풍을 몰아오던 망상을 다시 재현하여 권력기반을 다지고 부패의 향취에 취해보자는것이 《국민의힘》의 흉심인것이다.

하기에 《국민의힘》것들은 검찰수사권폐지가 립법화되자 《민주당의 립법폭주》라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말》을 떠들며 반발해나서고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이를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과 공간으로 리용해보려고 여론전에 적극 매달리고있다.

《국민의힘》안에서는 《검수완박법》의 립법화를 둘러싸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그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거지 제 자루 뜯기마냥 내부갈등도 심화되고있다.

한편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은 조직자체가 와해될 운명에 처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고위간부들의 사직, 대국민호소문발표 등의 항의와 경찰수사력량부족에 따른 범죄수사공백과 범죄피해자증가에 대해 여론화하고있으며 반면에 경찰은 《인권친화적인 조직》, 수사력량강화를 전면에 내들며 검찰의 반발을 맞받아치고있다.

이러한 정국혼란과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검수완박법〉의 립법화이후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고있다.》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여야사이, 권력기관들사이, 진보와 보수사이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정국혼란이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민생을 외면한 《호화잔치》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서민생활물가와 민생안정》이라는 절규가 매일같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러나 윤석열패당은 인민들의 어려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4만 1 000여명을 《초청》한다, 550여대의 《의전차량》을 동원한다, 청와대에서 하던 전례를 깨뜨리고 서울의 호화호텔에서 취임만찬을 벌린다고 부산을 피우며 《대통령》취임식을 호화판으로 요란하게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국민머슴》이라 자처하더니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아랑곳없이 《대통령》사무실이전, 관저선정 등으로 혈세를 탕진하는것도 모자라 취임식을 구실로 《호화잔치》를 벌리겠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대통령취임식에 력대 대통령취임식 중 가장 큰 비용인 33억원이 투입될 전망》, 《초호화혈세잔치로 민생보다 〈대통령이 먼저인 나라〉를 선언하는셈》 등으로 비난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소상공인, 장애인 등 모든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인터네트들에는 《윤석열이 당선되고 한 일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자기 사무실과 공관을 옮기는 일뿐이다.》, 《수백만US$가 랑비되는 취임식과 만찬준비외에 기억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등골 빼먹지 말고 검소하게 취임식을 진행하라.》 등의 비난글들이 대대적으로 오르고있다고 한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고작 0.7%차이로 겨우 이긴 권력이 이렇게 날뛰여도 되는지 분노한다.》, 《대형화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보이지 않고 〈황제놀이〉에 빠진 윤당선자의 혈세랑비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 《이 청원으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저 한다.》 등의 호화취임식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글들이 련일 오르고있다.

특히 남조선의 각계층은 《국민화합》을 떠들던 윤석열패당이 박근혜와 검찰나부랭이를 비롯한 극우보수분자들을 초청대상에 다수 포함시킨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취임식에 선거경쟁자를 초청하던 관례마저 깨버렸다.》, 《〈주민화합〉이 아니라 보수세력들만의 잔치로 될것》이라고 강하게 단죄하고있다.

민생을 외면한 《혈세잔치》, 《국민통합》이 아닌 《보수대잔치》, 《국민머슴》의 《호화잔치》가 될 윤석열의 《대통령》취임식이다.

바다물이 짠것을 알려면 한모금이면 족하다고 하였다.

윤석열패거리들의 취임식준비놀음에서 남조선 각계층은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웨치던 그들이 앞으로 어떤 정사를 펼칠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짐작하고있다.

그와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너스레를 떨고는 집권기간 《국민불행시대》를 펼쳐놓았던 박근혜의 분신, 《제2의 박근혜》를 보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만화 꼭두각시

로동존중의 새 사회를 안아오려는 강렬한 의지

남조선의 주요도시들에서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맞으며 《2022년 세계로동절대회》가 열리였다.

민주로총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대회는 윤석열의 반로동정책을 규탄하고 불평등, 량극화타파, 사회대전환을 위한 투쟁열의로 들끓었다.

대회의 주요구호는 《차별없는 로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교체! 지방선거승리!》였다.

집회에서 연설한 민주로총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민주로총에 대한 탄압을 로골화하고있다.》,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수 있는 나라를 요구한다.》, 《불평등세상을 교체한다는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한반도, 자주통일을 실현하는것, 재벌중심의 사회를 로동중심의 세상으로 바꾸는것,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것, 기득권량당을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강화하는것이다.》,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시대가 아닌 로동의 시대다.》고 하면서 민주로총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대회에 참가한 군소정당후보들도 민주로총과 함께 로동3권을 전면보장하고 권력과 자본이 판을 치는 야만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하였다.

5.1절 전날 부산, 충청남도 등 여러 지역에서도 로동자대회가 열리였다고 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대회는 친재벌, 반로동정책을 로골화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항거의 분출이며 로동자들의 뭉친 힘으로 로동이 존중되는 사회, 로동권과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굳센 의지의 시위였다.

본사기자

진탕에 오물을 합친 구정물당

남조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이 합당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의 《국회》 안에는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견제할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선거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인 《새로운 물결》을 흡수통합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도보수를 표방하였던 《국민의 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함으로써 남조선정치판의 세력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사이의 량당체계로 고착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간신히 생존해있던 중도정당들이 사라지고 량당체계가 강화되면서 승자독식의 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였다, 정치권에서 《소통》과 《협치》는 더이상 기대할수 없고 량극화만 심화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얼마전 《국회》에서의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사이의 싸움은 그를 실증해주었다.

한편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당》과의 합당을 놓고 《보수통합》이 된듯이 광고하지만 《국민의힘》내부에서 파벌싸움이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대통령》선거이후 《국민의힘》안에서 득세하고있는 윤석열파는 6월지방자치제선거후보추천을 계기로 당내 자파세력을 확대하고 현 당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 6월에는 당권까지 장악하려 하고있다.

그런데 《국민의 당》 대표였던자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장관직을 모두 마다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당대표직을 차지해보려고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민의힘》내부에서 6월지방자치제선거후보추천과 당권을 둘러싼 윤석열파와 안철수파, 비윤석열파사이의 마찰을 피할수 없게 되였다.

당리당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민생은 안중에 없이 변절과 배신, 리합집산을 밥먹듯하는자들의 합당놀음은 진탕에 오물을 합친것과 같은것으로서 남조선정국의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고 동상이몽하는 보수패당의 추악상을 더욱 드러냈을뿐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부패왕초가 후보로 내세운 패륜아들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직접 발표한 《국무총리》후보자와 장관후보자들의 부정부패의혹들이 계속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론난과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윤석열이 내정한 《국무총리》후보자는 2012년 미국주재 남조선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10년동안 특별한 직업도 없이 재산을 수백만US$나 불구고 특히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은 4년 4개월동안 남들보다 2배나 많은 월급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데다가 1997년부터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을 하면서 800만US$분의 서울시내 주택들을 사들여 미국회사들에 임대해주고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먹은 의혹까지 드러나 비난받고있다.

게다가 그의 처 또한 지난 기간 재산을 100여만US$나 불구고 처가는 청계천일대의 토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팔아 수백만US$의 리익을 챙긴것 등 각종 《특혜》의혹들이 드러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한편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윤석열과의 밀착관계와 재벌들과의 결탁의 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의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는 극우보수적인 력사관과 불법적인 부동산 소유문제로 곤욕을 치르고있다.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 국방부 장관후보자, 산업통상부 장관후보자 등도 불법기업매각, 다주택보유를 비롯한 각종 부정추문의혹협의를 받고있다.

이처럼 윤석열이 새 《정부》의 주요직들에 들여앉히겠다고 하는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리사욕추구에 이골이 난 돈벌레, 도덕적패륜아들이고 일가족속들모두 협잡군들이다.

이런 인간쓰레기, 추물들만 그러모아 한자리씩 주겠다고 하는 윤석열이야말로 부정부패의 왕초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윤석열이 떠들어온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파렴치한 《국민》기만이고 우롱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패당은 저들의 부정추문의 혹들에 대해 《도덕적, 륜리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 《위법행위는 없었다.》, 《순수 사적리익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함과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자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줄것이란 온갖 사회적악폐와 고통뿐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윤석열과 그 패당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켜볼것도 기대할것도 없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보수, 반윤석열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광혁

국제문제

무엇을 노린 안보전략개정인가

일본이 안보전략개정에 몰두하고있다.

섬나라족속들은 지난 시기 《평화헌법》의 9조에 명기된 《전수방위》원칙을 무효화하고 군사전략을 방어로부터 공격에로 이행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내들었던 《자위대》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가 내외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이번에는 《반격능력》이라는 문구로 바꾸었다. 특히 반격대상에 상대방의 미싸일기지뿐 아니라 군지휘부까지 포함시켰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안보전략개정에 맞게 현재 국내총생산액의 0.9%수준인 방위비를 2%로 대폭 증액하려고 하고있다. 또한 국제분쟁에 적극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무기수출규제원칙을 허물어버릴것을 주장하고있다. 일본은 이러한 기도를 3대외교안보전략총괄문건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안보전략을 개정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침략적인 안보전략개정움직임은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욕실현에 환장한 사무라이후예들의 무분별한 광기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 못할 위협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군사적힘으로 기어이 이루겠다는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이를 위해 사무라이후예들은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선제타격을 위한 장거리순항미싸일개발, 최신예전투기도입, 우주와 싸이버공간의 군사화에 광분하고있다.

또한 재침을 위한 법률적조건을 갖추려고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였는가 하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한 해석도 우격다짐으로 변경시켜 무력행사와 교전권포기 및 전투력불보유가 명기된 현행헌법의 조항들을 거의나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았다. 이와 함께 재침실현을 위해 자국민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주입하고 군국주의사상과 패망에 대한 복수심을 심어주고있다.

한편 섬나라족속들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전쟁방법을 숙달하기 위한 불장난소동을 뻔질나게 벌리고 지어 지경밖에까지 나가 화약내를 질게 풍기고있다.

일본의 안보전략개정놀음은 이러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의 직접적연장이며 발현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일본것들의 몸뚱아리에서는 뿌리깊은 침략야망과 복수심이 꿈틀거리고있다.

지금 내외여론이 일본의 안보전략개정놀음과 관련하여 섬나라것들이 주장하는 《반격능력》보유는 국제법이 금지하고있는 일본의 《선제공격》가능성을 열어놓자는것이며 주변나라들과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면서 지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누구의 군사적위협을 구실로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가능한 나라》로 변신하려는 교활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범국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의 종착점은 멸망이다. 지난 세기 당한 수치스러운 패망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 섬나라족속들은 지금 제발로 최후멸망의 무덤속으로 거침없이 걸어들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